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에서는**  
‘화폐를 통해 보는 세계사’라는 주제로 내년 5월 4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관람이 가능하며 무료입장이다. 세계사에 영향을 준 인물들과 함께 여러 나라의 지폐와 동전을 함께 볼 수 있어 어린이 청소년에게 특히 좋은 전시가 될 전망이다. (02)759-4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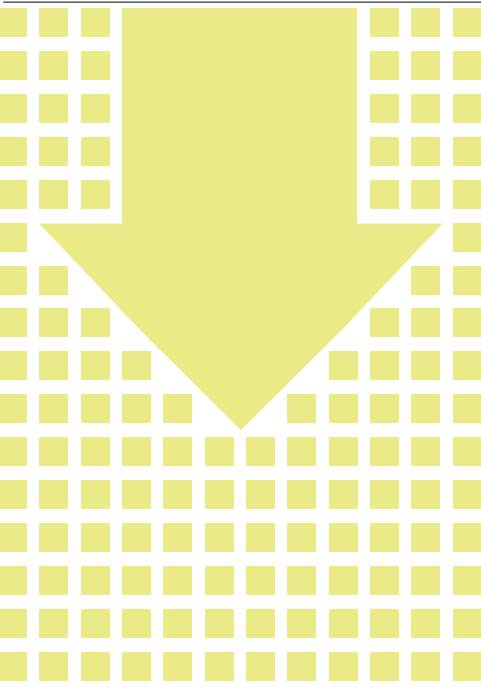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엄마야 똥야 함께 원숭이 특성을 관찰하고 비교하기’ 등 동물에게 먹이주기 체험은 물론 호랑이, 사자가 살고 있는 맹수실도 견학하며 동물을 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후 2~4시다. (02)450-9381-2

**과천 필룩스 조영박물관에서는**  
내년 1월 26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기획전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캔들전’을 진행한다. 관람 요금은 4000원, 기념양초를 받을 수 있다. 행사관은 양초와 함께 크리스마스 마을, 산타크로스 작업실 등으로 꾸며졌다. (031)820-800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시대의 표정-한국 현대미술 속의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12월 8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에서는 우리 현대미술 속 얼굴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객 자신이 주위의 인물 형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02)3277-3152

**부산 컨벤션센터에서는**  
12월 8~9일 ‘부산 코믹월드전’을 연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리 판매전, 우수회지 콘테스트, 엽서그리기 등 만화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들이 준비된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출판만화 외에도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051)583-2470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어린이·청소년 철학, 이렇게



‘내가 왜 태어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있을까. 아주 훌륭한 고민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엄마가 낳았으니 태어났지’, ‘이런 고민해봤자 뭐해’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리기 일쑤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바로 이런 사소한 생각이 철학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철학에 대해 어린이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철학자’라고 하면 무조건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상상하지는 않는지.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살’, 그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 차이는 존재하고 철학의 발전 방향도 다르게 흘러왔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이 철학을 접하는 방법은 도덕·윤리수업이나 글쓰기 또는 논술교육 등을 통해서 이뤄져왔다. 철학 그 자체에 대해 배운 경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철학교육 노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남대 철학교육사업단(062-530-0621)에서는 ‘청소년 철학교실’, ‘논리논술을 위한 철학교실’, ‘청소년 철학캠프’ 등을 마련해 매년 펼치고 있다.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02-883-3695)도 철학교육에 힘쓰고 있다. 사실기관이기는 하지만 철학교육도 출판은 물론 초·중·고 방학특강 등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사실기관 이외의 공교육에서 철학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전라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김영래 교수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어릴 때부터 철학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아이들에게 철학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철학 자체에 관심이 없어 고민’이라며 ‘어린이청소년의 삶 속에서 철학을 이끌어내 전달해줄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박정하 교수도 “‘철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지만 선택과목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고하는 학문인 철학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전문가 그룹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린이청소년이 스스로 철학에 대해 알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단계에 맞게 개발된 철학도서를 통해 스스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 어린이들의 철학 방법  
두 소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는 무엇이 무섭니?”  
“아빠가 화가 나셨을 때, 옆집 아저씨가 소리를 지를 때.”  
“우리의 무서움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서움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무서움이 없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무서움이 없다면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맛을 걱정도 하지 않게 되고, 나태해질게 분명해, 무서움은 필요한거야.”  
〈페르 예스페르센의 철학동화 중 일부〉

두 어린이가 숙제를 하다 갑자기 이런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 자체는 매우 평범하지만 ‘무서움으로부터 우리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삶의 진리를 대화를 통해 깨우쳤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철학에 풍~덩 빠지다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철학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어렸을 때 가지는 호기심, ‘왜’라는 물음을 적절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꾸준한 생각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래 박사는 “친구와 대화하며,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의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어린이가 철학을 접하는 시작”이라며 “불자 어린이들의 경우 불교동화를 읽으면서 마음변화를 느끼는 것을 통해 불교 철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 청소년들은 철학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철학의 의미는 단순히 논술을 잘 하기 위한 도구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왜냐하면 철학은 논술의 토대지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논술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당면과제니까.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 기본은 독서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독서를 한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 철학교육자 로제 폴 드르와는 <101가지 철학체험>을 통해 “생각하는 연습부터 하자”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교실에서 햇빛에 떠다니는 먼지를 관찰한다면, 공책 위에 글씨를 써본다면, 즐거거러 쉬는 영화를 보면서 운다던지 하는 행위도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생활 속에서 철학하기는 어렵지 않다. 내 생활을 가만히 관조하면서 들여다 보는 것도 철학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상과 만남으로써 한층 더 발전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서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철학 추천도서

- 어린이들을 위한 철학 추천도서
  - 『페르 예스페르센의 철학동화』 (페르 예스페르센, 닥터 필로스) 17개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으며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석기와 크는 아이』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산하)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선부의 늙고 병든 사람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해 불교철학을 접할 수 있다.
  - 『생명의 저울』 (김경호, 푸른나무) 14편의 인도철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일깨워 준다.
- 청소년을 위한 철학 추천도서
  -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류, 문학동네) 소설적이지만 한 양치기 소년의 모험과 판타지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우파니샤드 킷살말 전하는 지혜』 (이재숙, 풀빛) 불교, 힌두교 등 인도철학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서 <우파니샤드>를 풀어냈다.
  - 『공자, 지하철을 타다』 (전호근, 디딤돌) 유교 철학의 창시자 공자가 친근한 모습으로 판타지와 사실을 넘나들며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안광복, 웅진지식하우스) 고등학교 교사가 저자이므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서양철학사의 흐름을 정리했다.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추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뎀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남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사암침술·맥진강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 과정: 기초 ~ 전문가 과정 까지
- 내용: 12경락, 기경, 경근, 사암침법, 장부의 허실 판단, 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임상실습(고질, 난치병), 무통무열요법, 즉효요법, 카이로프릭
- 개강: 2007. 12. 13(월·화반) 14시, 12. 7(금·토반) 14시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 학회**  
서울 중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감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편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